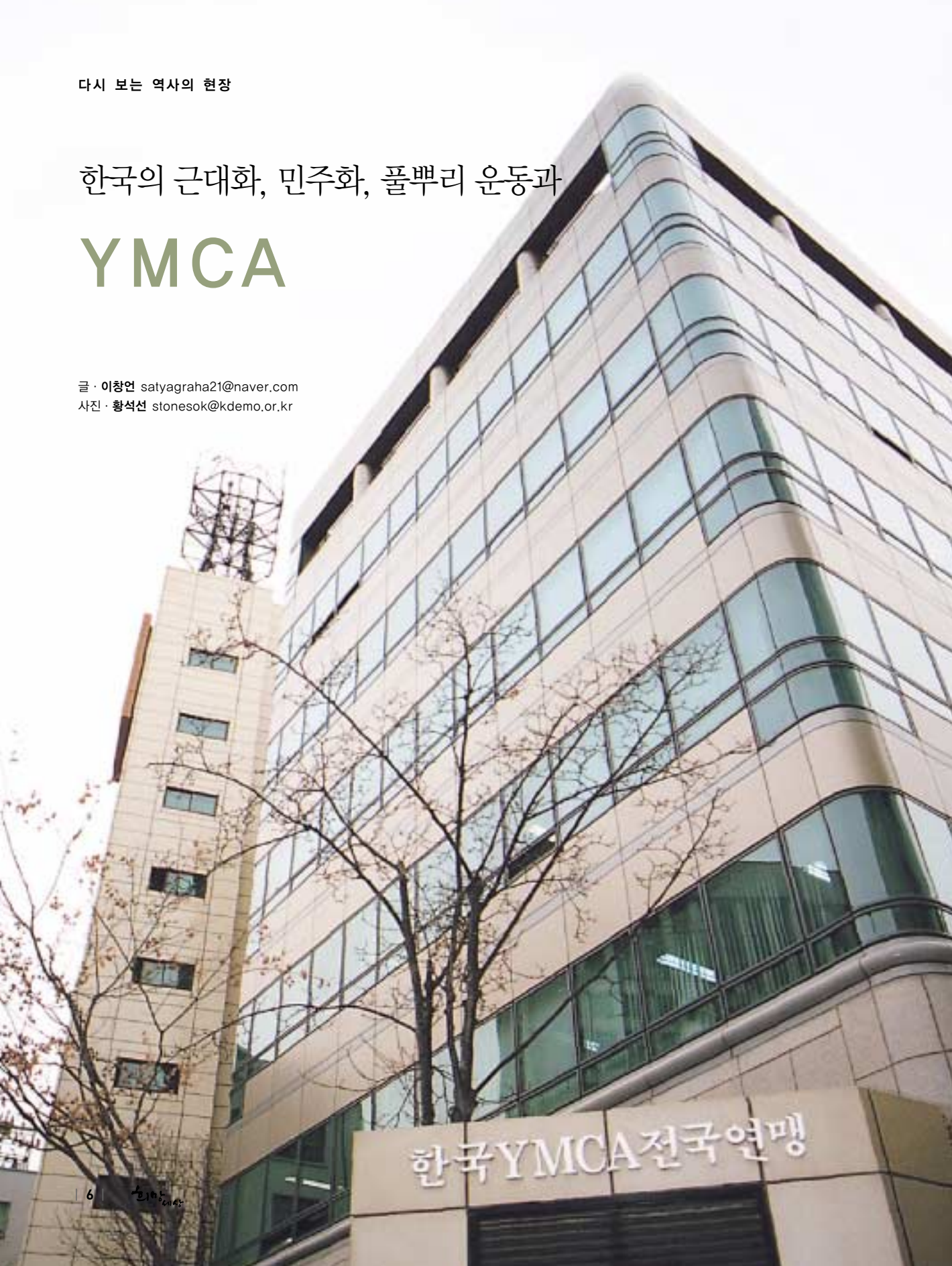


한국의 근대화, 민주화, 풀뿌리 운동과

YMCA

글 · 이창언 satyagraha21@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한국YMCA의 창설은 선각적 지식인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3년 10월 28일 최초의 한국YMCA로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지금의 서울 YMCA) 창립되면서 역사의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초대 이사장 계열, 초대총무 질레트, 정회원 28명, 준회원 9명)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의 지도자들이 YMCA에 대거 참여하고, 청년 애국지사들이 가담하면서 교육 계몽과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YMCA는 학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민족 지도력의 배출구로서 자리 잡게 된다. 3·1운동을 전후한 민족운동의 주요 사건과 YMCA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시민운동의 모범

비기독교 신자이자 시골 출신인 필자가 YMCA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1970년대 후반 조경수 라는 인기가수가 빌리지 피플의 YMCA를 번안하여 부르면서 YMCA를 처음 알게 되었다. 물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YMCA가 한국 시민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하는 친구들과 문화공연·학술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독교회관과 YMCA회관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YMCA가 단순한 종교 단체 그 이상의 무엇임을 어렵풋이 알게 되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중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체가 YMCA라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송강호, 김혜수가 주연한 영화 <YMCA야구단> 개봉과 배우 김수로가 유행시킨 '꼭짓점 댄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기사포즈단으로 인해 엄마들에게는 꽤 친근한 단체로 인식된다. 일반인에게 YMCA는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이면서도 지역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지역에서 최근(90년대 이후) YMCA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였다. 그 활동 영역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사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90년대 이후 YMCA는 지역차원에서 시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풍요한 삶과 성장의 그늘이었던 무제한적 자원수탈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한 생활환경운동의 전개,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이 있다. 또한

소비자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운동을 포함하는 생활협동조합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이라는 목적으로 담배자판기 추방을 위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의정감시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근거한 운동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미래상 만들기과 시민참여의 영역별 지표 만들기 운동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읍면동 등 생활현장에서 풀뿌리조직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최근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대중적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YMCA가 뿔이 단단히 났다고 한다. 작년 7월 28일, 세계YMCA연맹은 개신교 장로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경찰이 ‘YMCA촛불행동-농자’에 참여한 YMCA 회원과 시민들을 폭행·진압한 사건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세계YMCA연맹 마틴 마이스너 회장과 바트사하 사무총장 공동 명의로 된 서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집회에서 한국YMCA에 20명이 넘는 회원과 실무자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우리의 우려와 관심을 알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신체적 위협과 체포의 두려움 없이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유롭게 의견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달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에서도 박재창 회장과 임복충 사무총장 공동명의로 발송한 항의서한에서도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과 UN인권헌장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폭력 경찰을 투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한국YMCA 회원들과 이를 지지하는 세계YMCA연맹,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의 입장은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인식된 것은 결코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교회 세습과 목회자의 부정부패, 대형교회의 폐단, 노골적인 반복침묵적인 기도회 개최, 노사문제에 대한 자본가 편향적 인식, 공격적인 해외 선교에 더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이슬람권에 대한 살육행위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과 양심적 신자들에 의한 민주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

의 양심적 목회자와 신자들은 억압적 군사독재시절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외에도 교육기관으로서 낙후된 지역의 시민성을 고양하는데 일조했다. 나아가 민주화 이후 YMCA의 활동에서 보듯이 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건전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NGO

여기서 잠깐 YMCA의 개괄적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YMCA의 역사는 한국의 역동적인 근현대사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 YMCA의 역사는 크게 일제강점시기, 해방과 군사독재시기,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YMCA의 창설은 선각적 지사들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3년 10월 28일 최초의 한국YMCA로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지금의 서울YMCA) 창립되면서 역사의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초대 이사장 게일, 초대총무 질레트, 정회원 28명, 준회원 9명)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의 지도자들이 YMCA에 대거 참여하고, 청년 애국지사들이 가담하면서 교육 계몽과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YMCA는 학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민족 지도력의 배출구로서 자리 잡게 된다. 3·1운동을 전후한 민족운동의 주요 사건과 YMCA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YMCA는 해방과 전쟁 시기를 전쟁의 궁핍과 사회적 부조리로 말미암아 시대의 짐을 나누어지려는 전후복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체계적인 간사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개발독재시기 한국YMCA는 운동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기구적 각성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군사독재와 급속한 산업화, 에큐메니칼 운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개발과 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기독교 주체성에 대한 YMCA 내의 위기의식 고조 등 안팎의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개발독재시기 대학 YMCA연맹은 사회참여와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한국학생사회개발단을 통해 도시산업선교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연맹 주도하의 농촌사업과 아울러 YMCA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1974년 ‘목적과 사업연구위원회’를 신설로 이어지고, 한국YMCA운동의 ‘신학적 반성과 그 존재 이유를 재규정’하는 이른바 ‘YMCA이념추구’가 시작된다. 나아가 이



강문규(사진) 선생을 비롯한 YMCA 활동가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통제된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던 시민들의 민주여론을 수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여론화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시민의 훈련에 이바지한다.

교회와 YMCA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반공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운동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적 장과 조직적 자원, 주체역량이 일정하게 갖춰진 곳이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부 기독교 성직자와 목회자들은 도시선교와 농촌선교를 통해 민중의 열악한 삶을 목도하면서 유신치하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진실한 욕구와 권리가 제약되고 억압당한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부정의 맞서 저항하게 된다.

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YMCA는 1976년 제 23차 전국대회에서 <한국 YMCA 목적문>을 제정함으로써, 1973년 캄팔라원칙 수립 이후 자기 목적문을 가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청년회가 된다.

1970년대 이래 YMCA의 새로운 전환의 노력을 통해 가장 두각을 보인 부문은 민주시민운동이었다. 강문규 선생을 비롯한 YMCA 활동가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통제된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던 시민들의 민주여론을 수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여론화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시민의 훈련에 이바지한다.

교회와 YMCA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반공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운동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적 장과 조직적 자원, 주체역량이 일정하게 갖춰진 곳이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부 기독교 성직자와 목회자들은 도시선교와 농촌선교를 통해 민중의 열악한 삶을 목도하면서 유신치하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진실한 욕구와 권리가 제약되고 억압당한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부정의 맞서 저항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60년대 후반에는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들 사이에서 산업사회와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민중에 대한 재해석도 시도된다. 이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주요 담론이었던 민중론의 기독교적 재해석과 확산뿐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교회 밖에서 저항하며 탄압받는 학생과 재야운동의 보호에 앞장섰다.

당시 광범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개신교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다양한 사회선교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각계각층의 간부와 지도력을 배출하는 저수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일종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발판(Platform)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기독교협의회(KNCC)를 비롯한 개신교의 주요 인사들은 70·80년대 재야

운동세력의 모태가 되는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결성, 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1970년대 반유신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그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종로 2가 YMCA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은 개신교 운동세력의 내적 동질성과 유대감 형성, 민주화운동 주체들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한국의 시민운동과 YMCA

YMCA의 강문규 선생 등이 주창한 발판론(Platform)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운동론은 198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한다. 말 그대로 다른 많은 운동체가 YMCA를 거쳐 조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신은 ‘YMCA중등교육자협의회’였으며, 전국농민운동총연합회도 YMCA 농촌운동의 근간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YMCA 시민중계실은 생활세계를 중심에 놓는 지역시민운동의 하나의 전형이 된다. 조직·이념·사람이라는 세 가지 축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적인 자각을 강조한 <어소시에이션운동론>은 개별적이고 즉자적인 개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탈바꿈해 나가게 크게 이바지 하였다.

1987년 4·13 호헌조치 반대와 6월항쟁 참여, 대선시기 공정선거 감시단을 조직하는 한편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3년 동안 실시하여 약 1,400여 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조직해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1990



서울 소공동에 있는 YMCA전국연맹 사무실

년 이후 한국YMCA의 평화통일운동선언 발표를 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를 NGO의 시대라 칭할 정도로 시민사회조직(CSO)의 역할은 커졌다. 비판과 주장, 복지와 서비스 제공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실로 눈부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NGO에 대한 내외의 비판과 자성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그중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념적 정체성, 조직의 비대화, 백화점식 운영, 권력과 자본과의 유착, 성차별과 가부장성, 권위주의적 운영 등이라 할 수 있다. 한국 YMCA도 다양한 방식으로 YMCA의 이념을 현장화 하고자 하였으나 서울 YMCA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 준다. 강문규 선생은 시민운동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제기한다.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현장에 기반을 두려하기 보다는 CEO가 되려고 한다”라는 지적은 한국 YMCA뿐 아니라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자기성찰과 반성 시민운동의 정체성 탐구로 이어진다.

2004년 6월 ‘한국YMCA전국연맹 제 37차 전국대회’에서 채택한 〈한국YMCA 새로운 운동 100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은 우리시대 시민사회운동이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하고 있다. 선언문 일부를 요약 제시하면서 글을 마친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생태적, 문화적 소수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핌을 물론, 이들을 삶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섬김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타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 지구시민의 덕목을 키우는 지구시민 평화교육에 매진하며, 정의와 평화에 기초한 지구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글 이창연 | 현재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며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